

# 국내 공급망 생태계 강화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중소 상생금융 추진

- 허장 재경부 2차관, 공급망안정화기금 상생협약 체결식 참석 및 간담회 주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5.19일(화) 10:0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요 선도기업\* 대표들과 공급망 생태계 강화 및 구조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간담회 주재),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오재균 삼성SDI 부사장, 김민식 SK온 본부장

이번 협약식은 올해 3월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한 「공급망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면서, 가장 먼저 대·중소 기업 벨류체인이 중요한 이차전지, 원전 분야에서 상생 금융을 통해 국내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자 개최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원재료 공급·구매 관련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협력사에는 최대 2.4%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대비 10%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는 0.2%p(2.4%p 한도 내)의 추가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허장 2차관은 “이번 협약식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견고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며,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전주기에 걸쳐 대·중견·중소 기업 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사태 등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기금을 통한 적기 금융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4-215-7880)
		담당자	사무관	박영우 (paxkoreana@korea.kr)
			주무관	신동엽 (sdy62@korea.kr)

